



2023 THE KIMS' NEWS 김규동 & 최미정 선교사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삼하22:30)



실크로드에 그 무슨 선한 것이 있다던가! 못사람들은 되물습니
다. 맞습니다. 이곳 중앙아시아는 대체로 인프라가 고루 구축된
나라가 거의 없지요. 작금의 그들은 여전히 과거 한때 섬광처럼
빛났던 제국의 영광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권력의 횡포, 종교적인 억압, 가난의 되물림.. 좀체 앞날의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그나마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고향을 등지고 타국으로 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타고난 유목민적 기질을 가졌기에 떠남은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천오백년 전, 복음을 위해 잠시 썩임 받았던 이 민족에게 복음은 두 번째 찾아온 기회가 아
닐까 싶기도 합니다. 타슈켄트 국립도서관에는 온통 이슬람 관련 서적이 대부분입니다. 방
학인데도 학생들은 딱히 오갈 곳이 마땅치 않은지 그나마 시원한 도서관에 자리잡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깥 정문 근처에서 녀석들에게서 이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접하며
저 또한 바깥세상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심에서 택시운전으로 학비를 충당해 가는 젊은 대학
생들의 하루 수입은 잘해야 2만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속내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땅의
푸름과 향내에 천국으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현지인들에 익숙한 전통 바자르(재래시장)에는
함량부족의 차이나 생필품이 그나마 잠시 그들의 삶에 만족도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이면서 근본주의 이슬람교도인 히포르의 집에 사흘간 머
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7세기 말 이전 이 땅의 문화, 종
교, 민족들의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아주 생소하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소그
드인들의 역사도 들려주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관한 들려주었
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히포르에게서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의 딸은 한국유학을 위해 미리서 한국어를 독학해
제법 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아닌 전능자의 방법으로 척박한 이 땅에 자
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1.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사역지 탐방사역(6/23-7/31): 코로나 이전 매년 주기적으로 실크로
드 사역을 진행해오다가 근 3년간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기에 이번 방문은 회복이었습니다.

① 알마티: 김상길선교사님이 목회 중인 알마티 시온교회 방문하였습니다. 의료선교사 이병
연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현지 정보를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② 파라즈: 하영선교사 ③ 심캄트: 정길선박사 ④ 투르키스탄 ⑤ 비슈켈: 김창석, 최근봉,
김상우, 안규은선교사님 ⑥ 타슈켄트: 황남주선교사 ⑦ 히바 ⑧ 부하라: 히포르 ⑨ 우르구
트: 동방교회 수도원 ⑩ 사마르칸트...

2. 최미정선교사 대만사역: 김문환집사 가족, 박은영집사와 함께 대만 단
기 사역하고 돌아옴. 매 방학기간 청소년들의 왕래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중입니다. 다음세대 리더 세우기!!!!!!



3. 중국 난닝교회 소식: 저희가 개척했던 난닝 파파야교회가 얼마전 4시
간 거리인 따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두곳을 섬기는 하이란 전도사

게 영육간에 강건함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동안 많은 감시통제, 경제적인 열악함 속에서 도 근근히 버텨온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이 기쁜 소식에 감동입니다.



4. 아시아선교신학원&세계선교신학원&광신대 중국이단사이비종파 강의:

추방 이후 근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젠 제법 비대면 줌 강의에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이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레임에 마음을 다져봅니다. 예전에 당연히 여겼던 중국생활이 이 기간 그토록 귀했음을 깨우쳐봅니다.

5. 몽골 고대아시아 기독교 학술세미나 준비:

사실 몽골은 10-14세기 동안 기독교가 부흥과 쇠퇴를 경험했던 국가입니다. 이 내용을 몽골 사역자들에게 깊이 알려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지금 몽골교회의 성찰과 미래적인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항상 위태로운 상황에서 오히려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을 통해 뿌리를 내렸습니다. 금번 10/6-10일 일정에 큰 감동을 부어주시고 몽골 현지 목회자들에게 재도약을 알리소서!

6. 세계선교사중보기도회 인도:

9월과 10월 두차례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체류기간 매주 월요일 오후에는 제가 직접 안내와 설명을 맡고 있습니다. 고대기독교가 아시아에 유입된 과정과 그 내용을 재미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8. 고대 아시아기독교 도록 출판 준비: 장안의봄, 선의경교에 이은 세 번째 문서입니다. 대만사역 기간 품공이 제작해온 문서를 이번에 탈고하려 합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로 3~14세기까지의 동방교회 관련 유물과 사진을 열거하여 설명해 놓았습니다.



9. 요한이: 얼마 전 사진 작품전시회를 통해 삼백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토에서의 이년의 시간동안 많은 인맥과 적절한 일거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요한이가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를 주님 동행 가운데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0. 시온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 알바하느라 손바닥에 물집이 여러군데 터졌습니다. 새로운 신학기 준비를 합니다. 주여!

✦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① “파송교회와 협력교회” 그리고 각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소서!
- ② 몽골 “고대아시아 기독교 학술세미나” 사역(10/6-10)을 위해!
- ③ “고대 아시아기독교 도록” 출판을 위해!(출판비용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④ 내년 초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중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⑤ “파파야 지도자훈련”에 참여하는 사역자와 수강하는 중국 리더들에게 은혜 있기를!

연 락 처: 한국 010-2510-7890(김규동) ; max4kmgu@gmail.com

후원계좌: 외환: 010-04-06396-263 (예금주: GMS)

2023-10-03 김규동 최미정 요한 시온 배상

